
第76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海外交流增進特別委員會會議
錄 第6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5年4月14日(金) 午前10時

場所 水資源管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國際交流및觀光事業關聯懸案業務報告의件

審査된案件

1. 國際交流및觀光事業關聯懸案業務報告의件 ... 2面

(10時 50分 開議)

○委員長 沈揆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特別市議會 第76回 臨時會 海外交流增進特別委員會 第1次 會議을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그리고 文化觀光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희망찬 신록의 계절인 4月을 맞아 推進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보람차고 성과 있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WTO體制 出帆 以後 急速度로 擴散되고 있는 世界化 推進은 口號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市民이나 企業, 그리고 行政 執行者가 맡은 바 任務를 충실히 하면서 國際的 眼目과 行動으로 世界 속에 進出하고, 相互交流할 수 있는 자세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을 世界化하는데 중추

적 役割을 맡고 있는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의 보다 질 좋은 行政서비스로 世界 속의 서울로 發展할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議事日程에 들어가겠습니다.

1. 國際交流 및 觀光事業 關聯 懸案 業務報告의 件

○ 委員長 沈揆辰; 議事日程 第1項 國際交流 및 觀光事業 關聯 懸案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文化觀光局長으로부터 懸案 業務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文化觀光局長 金光市; 尊敬하는 沈揆辰 委員長님, 그리고 海外交流 增進 特別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個別的으로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3月末 文化觀光局長으로 發令을 받은 金光市입니다.

文化觀光局長으로 赴任해서 처음으로 特別委員會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海外交流 增進 特別委員會의 많은 支援과 積極的인 도움으로 서울의 國際交流 協力 增進을 위한 많은 施策들이 착착 이루어져 가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委員님들을 모시고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울이 國際都市로서, 太平洋時代의 서울로서, 21世紀를 향한 世界都市의 서울로서 나아가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울러 委員님 여러분의 많은 指導와 鞭撻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主要 業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國際交流 및 觀光事業 關聯 懸案 業務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海外增進事業, 그리고 서울의 世界化事業, 그리고 BESETO를 비롯한 서울의 앞으로 協力事業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報告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沈揆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國際交流 및 觀光事業 關聯 懸案 業務에 대한 質疑 答辯의 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丁煥 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李丁煥 委員; 李丁煥 委員입니다.

우리 前任 文化觀光局長님께서 名譽退職을 하신 以後에 새로 金光市 局長님이 文化觀光局長님으로 赴任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우리 局長님의 報告事項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우리 海外交流增進特別委員會에서 北歐 5個國 海外視察을 통해서 各 都市의 文化觀光事業이 어떻게 進行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各 都市마다 그 都市의 特性을 살려서 官과 民이 渾然一體가 돼서 정말 굴뚝 없는 工場인 이 觀光事業에 가장 都市의 行政力을 集中시켜서 力點的인 文化觀光事業을 推進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톡홀름 같은 데서는 그 都市에 알맞게 물의 祝祭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民·官이 따로 없이 渾然一體가 돼서 觀光收入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서울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가 하는 아쉬움을 썩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文化觀光局長님께서 장황하게 서울세계화 綜合計劃을 報告하셨습니다만 議員인 저의 立場에서 이것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實質的인 業務報告를 위한 業務報告, 그런 형식적인 報告의 느낌이 많고, 이것이 우리 市民과 官이 정말 渾然一體가 돼서 우리 서울의 觀光客 誘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혼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아쉬움인데, 예를 들자면 昨年에 韓國訪問의 해에 겨꾸로 우리 訪問은 줄고 海外觀光客이 훨씬 더 늘어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현상도 있었는데 정말 官 혼자서 아무리 아이디어를 짜 봐야 市民한테 전과가 되지 않고, 어떤 渾然一體意識이 느껴지지 않는 한 이런 무슨 서울세계화計劃이다 이런 것이 과연 얼마만큼 效果를 發揮할 수 있을까 하는 憂慮를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 市民 스스로가 호응할 수 있는 그런 具體的인 이런 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 競争力 強化다, 都市環境造成이다, 조금 뭔가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구체적인 行事를 갖고 市民과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代案들이 많이 開發돼야 되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단적인 예를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梨花莊이 最近에 李承晩 建國 大統領께서 組閣을 하고 했던 史蹟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市 地方文化財 6號로 指定이 되어 있습니다. 이 梨花莊 옆에 最近에 新規 建築을 許可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昨年 7月 以前에는 文化財 隣近에는 建築規制가 돼서 그 一

帶가 建築制限을 받았었습니다만 行政規制 緩和措置로 인해서 그런 規制가 풀렸습니다. 풀리다 보니까 隣近에 單獨住宅을 헐고 지금 多世帶住宅을 몇 가구씩 짓고, 그런 새로 짓는 住宅이 梨花莊을 전부 내려다보고 그런 어떤 프라이버시는 물론이고 周邊環境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側面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梨花莊을 管理하고 있는 이인수 박사님의 請願을 들어서 알아본 결과는 현재 行政規制緩和 以後에 建築法의 規制가 緩和돼서 전혀 建築法上에는 制限을 안 받고 있습니다.

단지, 地方文化財인 경우는 그런데 國家史蹟인 경우에는 여전히 制限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梨花莊은 아직 國家史蹟은 아니고 서울시 地方文化財이기 때문에 그런 建築規制 對象에서 除外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史蹟과 地方文化財의 差異가 뭐냐 했더니 예를 들자면 50年 建築物이 50年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判斷資料라고 생각하는데, 梨花莊 같은 경우 이제 거의 50年이 돼가고 있다고 하고, 또 李承晩 大統領에 대한 歷史的 評價가 肯定的인 側面과 否定的인 側面이 아직도 아울러 竝立하기 때문에 아직 史蹟으로 指定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建築規制 對象에서 除外됐습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물론 이것이 서울시 文化觀光局의 所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史蹟으로 指定하는 것은 文化體育部에 그런 委員들이 별도로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最近에 梨花莊이라든지 李承晩 大統領에 대한 建國大統領으로서 새로운 歷史的 評價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鍾路區廳에서는 그 梨花莊을 獨立遺跡地로서 探訪코스로도 指定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一帶에 어떤 民間住宅이 전혀 文化財로서의 保護를 받

지 못하면서 雨後竹筍처럼 들어섰을 때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에는 또다시 그런 어떤 文化史蹟으로 保護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外國 觀光客이나 우리 서울 市民들이 그 遺跡址를 觀光하는데 支障物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장에 法規로써는 어떻게 規制할 수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와 같은 모든 하나 하나의 問題가 굉장히 어떤 歷史性이나 公務員들의 그런 歷史意識이 없이 단순한 法規의 잣대로만 단순하게 評價하는 데서 이러한 副作用을 지금 우리가 生産해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文化觀光局長님의 報告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文化觀光局長님이면 적어도 10年, 20年 文化觀光局長을 죽 한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우리 서울시 文化觀光局이 해야 될 歷史意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불과 세 달 있다가 바뀌고, 또 두 달 있다가 다른 분이 왔다가 바뀌고 도대체 專門家的인 意識 없이 이렇게 우리 文化觀光을 總括指揮하는 局長님의 자리가 위태로워서야 우리 서울시 文化政策이 일관성 있게 推進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모든 問題가 한심스러운 서울시 行政이 아닌가 하는 데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번에 赴任하신 金局長께서도 지금 兼職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財政擔當官 자리도 막중한 자리입니다만 정말 우리가 앞으로 지켜나갈 일은 바로 이런 서울의 歷史性, 또 文化財, 또 世界 속의 서울의 위치, 정말 文化觀光局的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文化觀光局長이라는 자리가 兼職이나 해

야 되고, 또 언제 바뀌어야 되고, 專門性 없는 局長들이 왔다가 가고 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다른 무슨 內務局長, 財務局長 자리하고는 다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文化觀光局長의 자리는 그런 어떤 專門性和 歷史性, 이런 주관이 뚜렷한 분이 長期的으로 計劃을 樹立하고 推進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질타를 하면서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梨花莊에 관한 問題點에 대해서는 文化觀光局長님께서 文化財課長이나 또 隸下 鍾路區 建築課를 통해서 한번 調査를 해서 本委員에게 書面으로 答辯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揆辰; 蘇中天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蘇中天 委員; 蘇中天 委員입니다.

방금 李丁煥 委員님께서 좋은 指摘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 어떤 觀光事業에 대해서 좋은 意見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本委員은 文化教育委員會 所屬 委員으로서 文化觀光局長님과 우리 幹部님들을 늘 접할 수 있는 機會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물어볼 것은 없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새로운 부분을 報告書에서 봤기 때문에 한 네 가지를 質疑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大韓民國의 國政運營이 世界化,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도 地方化 時代가 개막이 되어서 저희들도 地方議員으로서 任務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6月 27日 各 區마다, 또 各市·道마다 團體長이 選出되는 地方化, 分權化 時代, 또 世界的으로 또 한 가지를 본다면 情報化 時代, 제가 볼 때는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世界化 問題는 中央政府에서도 國政目標가 世界化니까 잘 알아서 하리라고 보고, 과연 地方化 時代に 지금 報告에서도 보면 觀光產業育成을 어떻게 할 것

인가,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報告書 같습니다. 그런데 이 報告書 內容으로 보면 우리 李丁煥 委員님이 指摘한 것처럼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 하면 觀光産業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열되어서 추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觀光은 어떤 文化나 어떤 歷史가 그대로 保存이 되어 있고, 保存하려고 하는 公務員들의 자세와 國民들의 그런 생각이 일치되었을 때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 李丁煥 委員께서 북유럽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쪽을 가봤었고 얼마 전에는 뉴질랜드나 호주를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그쪽에 물론 우리 局長님이나 課長님도 잘 아실 것이예요. 또 저희들이 言論에서 國民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言論에서 호도하고 地方議員들이 나가서 돈 쓰러 간다, 어찌고저찌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당당히 얘기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世界化를 하려고 그러면 世界를 봐야 된다 말입니다. 가서 노는 것이 아니고 실지 가서 보니까 내가 잘 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본 것을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우리 地方化 時代에 副應할 수 있도록 市政에 反映한다, 그런 次元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뉴질랜드 같은 데를 보면 그분들의 歷史가, 마오리족인데 1200年 前에 마오리족은 아주 뭍니까, 바이킹족이나 다름없는, 바다에서 먹고 사는, 심하게 얘기하면 해적 같은 그런 歷史를 가졌는데 영국령으로 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마오리족의 歷史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처럼 선인들이 살았던 집을 保護하고 이런 次元이 아니고 그 文化와 住宅과 마오리족들이 마을을 형성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그 자체가 觀光事業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아

마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놓은 施設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國政指標가 무엇이나 하면 지금 車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컴퓨터 普及率이 34%라는데 그것은 다 輸入해서 쓰고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만들면 자기네들의 文化가 죽고 公害로 인해서 環境이 죽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모든 것이 지켜진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報告書에 보면 앞으로 觀光事業을 다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서울로 놓고 봤을 때 어떤 特性에 맞는 觀光事業을 할 것이냐 具體적으로 說明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10가지, 20가지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라도 이것이다 그랬을 때 局長님도 納得이 가고, 여기 있는 委員님들이나, 市民들이 納得이 갈 수 있는 事業을 내놔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고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제 저희들도 視察, 또 배우러도 갔지만 또 한 부분은 저희들이 觀光도 하고, 觀光을 한다는 것은 US달러를 결국에 쓴다는 얘기이고 뉴질랜드에다 우리 나라 돈을 주고 온다는 결론인데 많이 사고 싶다는 말이에요. 돈은 없지만 저는 個人으로 얘기한다면 돈 많이 가져가지도 않고 準備해 봤자 열쇠고리 몇 개 정도 사왔습니다만 열쇠고리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을 꼭 사야 되겠다, 참 예쁘다, 야 저것이 저렇게 멋있는가, 거기에다 조그만 곳에도 뉴질랜드라는 그 나라, 아니면 그 市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觀光客들이 왔을 때 여기 들렀다, 저기 들렀다 이러다가 가지고 왔던 돈을 남겨 간답니다. 이것은 市

民輿論調査에 나와 있어요. 公報官室에서 調査한 것을 보면 1/3정도는 남겨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물론 消費性이 심해서 그렇습니다만 사고 싶은 충동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나라는 쓸 수 있는 資料를 提供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計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觀光局長님 말씀을 우리 李丁煥 委員님이 드렸는데 자꾸 바뀌시니까 과연 이것이 專門性이 결여되었고, 또 과연 이것이 이대로 되겠는가 의심이 가요.

지난번에 孫長鎬 局長님한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事項인데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市長이 앞으로 6月 27日이나 28日이면 탄생되기 때문에 文化觀光局에서는 우리 서울 市를 다 돌아보고 우리 서울 市에 오면 大韓民國 歷史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600年, 그 다음에 서울의 어떤 商品이 무엇이나, 그 다음에 傳統文化는 무엇이나, 傳統飲食은 무엇인가, 또한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나갈 때 外貨를 가지고 왔던 것을 다 털 수 있는 그런 方案이 講究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外國인들이 와서 여기 참 멋있다, 이것도 사고 이 飲食도 맛있다, 그 다음에 이 文化에 대한 歷史性을 자기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보니까 무슨 綜合觀光館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重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고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마음 속에 넣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가서 우리 韓國을 理解할 수 있고 자기들이 韓國에 왔다 간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方案이 되려면 大單位 큰 綜合觀光團地를 造成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서울 市長님이 앞으로 무형의 觀光事業은 이것은 무진장 엄청난 비전을 가지

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市長이 정말 정신이 빠지지 않은 사람 같으면 반드시 이것은 構想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변두리 많잖아요, 大單位 큰 團地, 들어오면 韓國의 歷史를 보고 서울의 600年을 볼 수 있고, 商品을 購入할 수 있고, 文化를 보고, 傳統飲食, 그 다음에 마지막 外貨를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團地造成을 한번 計劃 研究할 方案은 없는지 局長님이 밝혀 주시고,

昨年에 서울定都600年이자 韓國訪問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환으로 日本에 가서 韓國을 紹介하기 위해서 제가 日本에 各 都市를 돌아 봤는데, 제가 日語는 잘 못합니다만 서울시 市廳 職員하고 通譯을 해 가지고 日本人들과 對話를 나눠보니까 日本人들 시각은 韓國에 가면 무슨 엉뚱한 생각만, 이것 실지입니다, 日本人들이 와 가지고 물론 우리 遺跡址도 보고 觀光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무슨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解消할 수 있는 方法을 우리 서울시 次元에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日本人들 思考에는 지금도 그런 思考가 박혀 있어요. 觀光協會에 저희들이 가서, 아침에 기상해서 바로 간 곳이 言論社 訪問하고 그 다음에 觀光協會 會員들을 召集해서 점심을 먹고 브리핑을 하면서 韓國을 紹介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質問하는 것이 그 質問을 해요. 지금도, 昨年까지도.

이것은 이제 民間團體 次元에서는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그분들도 民間團體 觀光會社들은 우리 나라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자 事業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지고는 解消가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서울시에 우리 서울特別市라는 執行部側에서

그런 方案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가 라는 方案을 研究해서 日本뿐이 아니고 또 各 國에 그 方案을 研究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時間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다시 한 번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質問을 마치면서 정말 이제는 地方化 時代에 副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事業이 適正한가, 觀光事業 이런 아까 李丁煥 委員이 指摘한 것, 또한 本人이 指摘한 부분이 確實하게 研究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世界化, 地方化 되려면 情報를 빨리 받고 우리가 줄 것을 빨리 提供을 해 줘야 되는데 情報가 굉장히 뒤떨어 집니다. 왜 뒤떨어지느냐 하면 우리 서울市廳에서 駐在官들이 지금 나가 있어요. 몇 군데 나가 있는지 정확히는 모릅시다만 나가 있고 우리하고 姉妹結緣 맺은 데도 19個 都市인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그 姉妹結緣 맺어 있는 都市는 1年 12달에 공식적인 스케줄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론 스케줄이라는 것은 變更이 됩니다. 우리 서울市廳 市長의 活動도 내일 어떤 計劃이 잡혀 있지만 특별하게 어떤 일이 發生이 되면 바뀝니다만 서울特別市政의 1年の 方向, 지금 文化觀光局長이 報告한 文化觀光局의 1年の 方向은 이것 이거든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내가 指摘을 여기서 안 하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서울市廳이나 서울市議會나, 大韓民國 國會에서 호주를 갔다고 했을 때 그 시드니市라고 하는 그 地域이 어떤 選舉가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큰일날 소리입니다. 그래 가지고 허둥지둥 팩스를 보냈는데 받고 오고, 안 되고 있으면 이것은 世界化도 안 되고, 地方化도 안 되고, 情報化도 안 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면 거기 나가 있는 駐在官들이나 또 우리 서울시 文化觀光局 國際交流課 職員님들은 수시로 그 地域 情報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6月 30日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여기 대다수 분들은 다시 地方議員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대다수 분들은 직접 各 自治區나 廣域에서 管理者로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서울시議員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저분들은 6月 30日에 떠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우리들이 4年 동안 議政生活 한 것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速記錄에는 다 비춰져 있습니다.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바로 그 部分을 參考하고, 저희들이 다시, 저 같은 경우도 거의 70%는 서울시議會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指摘했던 部分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엄청난 충고를 받을 것입니다. 이 점을 參考하셔서 제가 물었던 두 가지 部分은 答辯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揆辰; 文化觀光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金光市; 文化觀光局長입니다.

李丁煥 委員님과 蘇中天 委員님, 좋은 指摘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질책을 해 주셔서 앞으로 職務를 遂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또 많이 參考를 하고 反映이 되도록 努力을 하겠습니다.

먼저 李丁煥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것과 蘇中天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것 중에 共通되는 部分은 觀光事業을 어떻게 發展

시키고 어떻게 開發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 나름대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專門性 問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시 公務員이라는 것이 여러 委員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도 안되어서 자리 바꾸는 경우도 있고, 2년도 안되어서 자리 바꾸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땀질식으로 우선 자리를 메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業務에 대한 聯關性이라든가 一貫性, 그리고 거기에 대한 專門性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고 사실이지만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兼職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文化觀光局長으로 온 것에는 전혀 관련 없이 온 것은 아니라고 委員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86년에 아시안게임 있던 해부터 88년 서울 올림픽을 거쳐서 89년까지 제가 文化課長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년을 文化課長을 하면서, 그 때 文化課는 文化觀光局이 없을 때입니다. 文化課라는 課가 하나가 있었을 때인데 그때 機能이 지금 현재 文化課가 하는 것, 文化財課가 하는 것, 國際交流課가 하는 것, 觀光課는 그때도 있었지만 그 세 가지 機能을 그 때 文化課라는 데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한 4,5년 동안 文化課長을 했고, 昨年에 委員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600年企劃局長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財政企劃官으로 있으면서 아마 위에 계시는 분들이 文化課 業務를 오래 했으니까 들은 바도 있고, 해 본 바도 있으니까 文化觀光局長을 겸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兼務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생소한 分野도 아니고 또 5년, 6년 동안 이 業務를 봐오면서 文化觀光業務에 상당한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

면 서울의 文化觀光振興, 또 우리 나라의 文化觀光振興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한 段階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을 매일 같이 시도 때도 없이 다른 業務에 다른 補職에 있으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죽 해 왔습니다.

어떤 分野는 제가 10年 前에 있을 때나 똑같이 답보상태, 낙후상태로 있고, 어떤 分野는 발전한 狀態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文化觀光分野에는 이런저런 分野로 제가 많이 關與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委員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指摘해 주신 것을 최대한 反映되도록 努力을 하겠습니다.

서울에 觀光分野는 지금 委員님들이 말씀하시는, 具體的인 것이 나와야지 매일 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느냐, 시도 때도 없이 구름 잡는 소리만 해서 언제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觀光의 추세가 보는 觀光에서 이제는 즐기고 體驗하는 觀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世界化하고 國際化가 된 世界, 모든 世界人들이 다 各國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委員님들 中國 자금성 다녀오시고 다 다녀오셨는데 자금성에 궁 보시고 오시면 우리 나라 궁이 누구 말마따나 자금성의 사랑채만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으로만 對比를 하면 우리 觀光産業, 文化産業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이집트에 갔다 오신 분, 희랍에 갔다 오신 분, 로마에 갔다 오신 분, 自然的으로 보면 美國에 갔다 오신 분, 남미에 갔다 오신 분 보면 우리 나라 自然的인 觀光資源이라든가 人工的인 觀光資源이라든가 歷史的인 觀光資源이라든가 전혀 내놓을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

또 사실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觀光産業, 文化産業을 어떻게 增進시킬 것이냐, 그러면 팽개쳐 놓을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昨年에 韓國訪問의 해를 해서 600年事業과 결부해서 즐기치게 해 봤습니다만 모든 規制를 풀어서 호텔도 增築할 수 있게 하고, 다른 附帶營業도 할 수 있게 하고, 標識板도 하고, 들어오는 外國人들에 대한 서비스도 잘하고, 혜택도 많이 주고, 通關檢査도 안하고, 이런 수도 없는 施策을 政府나 서울市에도 했지만 委員님들께서 指摘하시듯이 觀光 나가시는 분하고 外貨가 더 많았지, 들어오는 觀光客이라든가 外貨는 더 적었다 이것 이에요. 우리 觀光의 限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世界都市化하고 世界化해야 되는데 독자적인 것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專門家하고 관계되는 觀光協會하고 또 거기에 대한 研究機關, 그리고 실제 旅行社를 하고 있는 旅行機關, 그리고 文化體育部에 觀光局하고 觀光公社 이런 데하고 우리가 主管이 되어서 지금 文化觀光 살리기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自然이라든가 人工的인 것을 갖다가 옛날에 歴史的인 유물을 갖다 그냥 보여주고 오라, 그래서 안 되지 않느냐, 어떤 商品을 제대로 프로그램에서 開發을 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면 宮이 지금 昌德宮도 있고 景福宮이 있으면 宮을 連結을 해서 博物館을 연결하는 이런 코스를 開發하면서 단순히,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昌德宮에 요새 보면 시간을 제한해서 11時부터는 日語圈만 들어가고, 또 4時부터는 英語圈만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韓國 사람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制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한 군데만 들어가고 할 것이 아니라 景福宮과 昌德宮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開發해서 그것을 연결시킴과 동시에 景福宮과 昌德宮 사이에 지나가는 길을 整備를 해서 그 길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傳統飲食이라든가 傳統商品을 조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國立中央博物館 移轉을 할 것입니다만 國立中央博物館을 보시고 나서, 景福宮을 들어가서 景福宮을 관람하고, 그 다음에 昌德宮으로 移轉하는 過程에 移動路를 조성할 때 주변에 우리 傳統商品이라든가 傳統飲食이라든가 기타 紀念品店을 整理를 해서 이동하는 部分에 旅行客들이 그런 것을 다 한번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昌德宮을 거치고, 또 昌德宮에서 끝나고 나면 뭐냐, 그 다음에는 쇼핑을 위해서 이태원으로 연결시키도록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健康에 대해서 外國人들도 關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北漢山이라든가 서울 근교에 아름다운 산도 있고, 또 그분들이 寺刹 같은 곳도 아주 關心을 갖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北漢山, 道峰山과 도선사를 연결시키고 傳統的인 어떤 우리 體力에 관련된, 일본 사람들도 그런 것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라든지, 또 各國에서도 하고 있는 테마관광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課題를 가지고 테마관광하는 것, 그것 중의 하나 代表的인 것이 日本 사람들은 百濟文化면 깜빡 죽습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百濟 뭐 하면 日本 사람들은 자지러질 정도로 百濟 뭐가 있다 하면 그냥 일부러라도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百濟文化圈에 대한 테마관광을 우리가 日本에 하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도 百濟文化圈이 많이 있고 또 이와 連結시켜서 扶餘, 公州까지도 할 수 있지만 서울에 있는 百濟文化圈의 유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歷

史的인 사실들을 가지고 日本 사람들한테 충분히 테마관광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開發하는 作業들을 지금 서울市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李丁煥 委員님 좋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市民團體, 協會, 專門機關과 같이 살리기 운동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理解를 해 주시고, 지금같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수시로 말씀도 해 주시고 指導해 주시면 이것은 發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또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梨花莊 關係, 李丁煥 委員님 質問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年度부터 梨花莊에 關與를 했습니다. 그 때부터 梨花莊에 프란체스카 미망인이 계실 때부터 제가 가서 뵙고 즉 關與를 해 왔는데, 그 뒤에 다 담을 친 것은 서울市가 돈 들여서 해 준 것입니다. 그 주변 整備는 서울市가 돈 다 들여서 했어요. 金額으로 치면 즉 한 10年 사이에 15億원 정도 들어갔는데, 重要的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높은 데에 있는 집들이 안을 들여다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이인수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변에 建築規制를 할 수 있는 法은 文化財保護法입니다. 文化財保護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國家指定文化財일 경우에만 되지 地方指定文化財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私權을 規制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文化財保護法에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 그 당시에 文化部, 지금 우리 地方 서울市 文化財로 되어 있기 때문에 國家指定文化財가 되어야 法에 의해서 私權이 制限된다 이거예요. 수차 國家指定文化財로 해 달라고 要請했는데 政府의 얘기는 公式的인 얘기입니다. 文書로 내 놓은 것입니다. 아직도 李承

晩大統領에 대한 歴史的인 評價가 안 났기 때문에 國家指定文化財로는 할 段階가 아니다, 이렇게 딱 내려와 있습니다, 文書로. 그러니까 國家에서 國家指定文化財로 할 만한 評價가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國家指定文化財로 할 段階가 아니다, 서울시 文化財로 잘 管理해라,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文化財로 管理하면 限界가 있는 것이지, 주변에 있는 것이 다 私有地인데 그 私有地를 建築을 規制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鍾路區廳에다 그것을 行政的으로 잘 指導를 해라 그렇게는 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崔市長님 오셔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땅을 市에서 살 수 없느냐, 아예 그 주변의 땅을 市에서 사서 綠地로 造成할 수도 있고, 집안 짓도록 그런데 땅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都市計劃으로 또 묶어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맨땅을 그냥 서울시가 個人으로 돈주고 못 산다 말입니다. 都市計劃으로 묶어서 公園이면 公園으로 묶든지, 그러면 묶어서 都市計劃法에 의해서 안 팔려면 또 수용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이 또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崔市長님도 關心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發展을 시키고, 鍾路區廳쪽에는 계속해서 行政指導를 통해서 그것이 높은 데 올라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 되고, 예를 들면 창을 그쪽으로 안 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行政指導를 하도록 계속 우리가 指導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蘇中天 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觀光産業을 振興시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指導해 주시는 데 따라서 우리가 開發을 시키고 發展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大單位 綜合觀光團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번 와서

商品도 사고 음식도 먹고 觀光할 수 있는 그런 大單位團地를 造成하는 것, 좋으신 말씀으로 해서 發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商品에 대해서는 우리가 昨年부터 文化商品展이라고 해서 우리 나라에 특수한 傳統的인 商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이 담긴 商品을 外國에 알릴 수 있는 商品을 開發해야 되겠다 해서 文化商品展을 서울시가 主管해서 昨年에 했습니다. 하니까 이것이 상당히 첫해지만 호응이 좋아서 지금 文化體育部에서 이것을 國家單位로 文化商品展을 하겠습니다. 이 文化商品展은 단순한 文化商品이 아니고 주로 우리 文化를 大變할 수 있는 觀光商品展입니다. 그래서 今年에도 우리가 文化商品展을 할 것입니다만 政府에서도 이 計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日本 訪問客들이 엉뚱한 생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政府와 協議를 하고 있고, 民間團體를 통해서 조금 淨化事業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日本人들이 그래도 觀光客의 6·70% 이상이 日本 觀光客이기 때문에 日本 觀光客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日本 觀光客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開發하면서 동시에 이런 것은 淨化해 나가도록 政府와 民間團體가 協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世界化, 地方化에 걸맞게 姉妹都市의 情報를 빨리 해서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姉妹都市가 있습니다만 지금 駐在官이 나가 있는 데는 東京하고 샌프란시스코인데 이 두 군데서는 제 때 제 때 옵니다. 팩스가 매일 오고 하는데, 다른 市에서는 아직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서울에 商品展示館도 만들고 하니까 거기에 公務員

들을 어떻게 派遣이라도 해서 그런 데서 그런 機能을 통해서라도 살아 있는 情報가 接受가 돼서 그것이 유용하게 活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答辯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李丁煥 委員; 우리 金光市 局長님께서 아주 해박한 文化觀光 分野의 지식을 갖고 局長님으로 赴任하신 것이 우리 서울 市 文化觀光發展에 크게 寄與하리라 마음이 놓입니다. 아울러 제가 한 가지 助言을 한다면 5月 7日 宗廟大祭가 있어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 無形文化財나 이런 것으로 指定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指定되어 있습니다.

이런 行事도 제가 參與해 보니까 극히 일부분의 市民밖에 參與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宗廟大祭 같은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런던을 가면 왕궁의 近衛隊 이런 것을 보듯이 韓國에는 5월에 가면 宗廟大祭를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日本이라든지 外國 觀光客들한테 弘報가 되면 상당히 많이 어떤 5월에 맞추어서 서울觀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昨年에 定都600年事業을 해서 사실상 많은 無形文化財라든지 이런 것이 開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昨年 한 해의 單發性 行事가 아닌 그 중에서 발췌해서 반응이 좋았던 것은 지속적으로 아주 정말 서울을 觀光할 때에는 몇 월에 가면 무슨 行事가 있고 하는 것을 이렇게 體系的인 弘報를 해서 觀光商品化할 수 있도록 이렇게 推進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發展하기 위해서는 文化觀光局長이 아까도 제가 指摘했듯이 수시로 局長님이 바뀔 때마다 政策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文化

觀光局長님은 4年이고 5年이고 어떻게 長期的인 政策을 推進할 수 있도록 그러한 制度的인 補完도 必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文化觀光局長님이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沈揆辰 委員長님께서도 이런 部分은 우리가 執行部에 강력히 議會에서 建議해야 될 部分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蘇中天 委員; 지금 우리 李丁煥 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局長님 答辯을 듣고 보면 사실 저도 뭔가 닿는 것이 있어요, 실지입니다. 지난 執行部 局長님들보다, 비단 文化觀光뿐이 아니고 그 어떤 진술하고, 또 앞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이 닿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整理를 하면서 質疑하겠습니다.

觀光客들이 오면 觀光을 하게 되고, 식사를 하러 가려면 어차피 交通手段이 問題가 되는데 自動車가 이렇게 막히니까 政策的으로 막히지 않는 方法을 우리 서울市만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 部分이 아니고, 그분들이 集團으로 타고 이동하는 觀光車에 대한 것을 한번 指摘하고 싶은데요, 外國인들이 대단히 不便하다고 그러디다. 내가 지난번에 日本人 觀光客 한 분이 우리 후배 친척들과 함께 왔기에 물어보니까 觀光車가 자기네들로 보면 조그마한 會社車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나라는 法令 根據가 該當될지 모르겠습니다만 外國에 가면 벤츠 참 좋습니다. 사람이 타 보면 觀光하는 部分도 重要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편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車輛도 劃期的으로 우리 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競爭

業體들도 競爭關係를 일으켜서 아주 고급화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文化觀光局에서도 研究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하고요.

우리 나라가 道德的으로, 잠깐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만 상당히 부패되어 있어서 자식과 부모관계, 이웃관계가 엉망진창인데 그것은 자식한테 遺産을 많이 물려주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出發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요. 너무 물질만능, 그래서 서울시 아니면 우리 國家的인 次元에서 이제는 우리 자손한테 무엇을 遺産으로 물려줄 것인가라는 그런 運動을 한번 展開해 보십시오. 제 생각 같으면 우리의 傳統文化를 영원히 물려준다 첫 번째하고요, 이것은 建議입니다.

두 번째는 100年, 200年, 1000年 후에도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고, 이 環境을 그대로 물려주겠다 라는 自然環境을 물려주자.

두 가지를 제가 建議드릴 테니까 서울시 市長님과 같이 어떤 幹部會議 席上에서 이런 問題를 한번 市民運動으로, 國民運動으로 展開 하는 방법을 研究해 보십시오.

○文化觀光局長 金光市;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李丁煥 委員님께서 아까 좋은 指摘을 주신 것, 宗廟大祭 事例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昨年에 600年事業 할 때 總事業들을 整理해 보니까 그때도 특히 觀光公社에서 27個 世界都市에 觀光支社가 나가 있습니다. 그 支社의 支社長들이 韓國訪問의 해에 왔었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서울시나 政府나 마찬가지로 무슨 行事 한다 하면 한 달만에도 바꾸고, 두 달만에도 바꾸고 그러니까 觀光이라는 것이 6個月 前에 다 弘報가 돼서 아까 李丁煥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5월에 宗廟大祭가 있고, 또 뭐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觀光을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計劃을 짜는데 韓國에서는 그런 날짜가 없다 이거예요. 豫定이 안 된다, 國際會議도 바꾸는 판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觀光이 되느냐 하는 指摘을 外國人들한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昨年 600年事業을 整理해 보니까 한 17個 정도의 行事는 年例化해서 弘報를 해야 되겠다 해서 宗廟大祭가 들어 있습니다. 宗廟大祭라든지, 우리 동대문에서 하는 선농제라든지, 사직공원에서 하는 사직제라든지, 또 과거시험 재현이라든지 이래서 文化商品展도 들어 있습니다만 17個를 날짜를 固定했습니다. 固定해서 6個月 前에 觀光公社와 협조해서 그쪽에서 海外觀光支社를 통해서 弘報해 달라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더 챙겨서 弘報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蘇中天 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觀光車輛 高級化 이것은 우리가 꾸준히 推進하고요, 또 요새 조금 問題가 있는 것이 버스 專用車線에 觀光車가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外國人들 싣고 觀光地로 가는데 아침이고 저녁이고 막혀서 서 버리니까 2時間, 3時間씩 걸려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觀光버스로 버스專用車線을 利用하도록 해 달라, 그런데 우리 나라 法이 이상해서 觀光버스는 버스專用車線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法에 보면 一般市民의 通勤을 위해서, 生業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觀光버스가 들어가도록 우리가 建議해 놓고 推進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우리 市民運動으로써 무엇을 정말 우리가 後代에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은 서울시 次元에서도 檢討할 수 있는 분위기를 造成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沈揆辰; 이상으로 國際交流 및 觀光事業關聯 懸案業務報告에 대한 質疑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文化觀光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議會 第76回 臨時會 海外交流增進特別委員會 第1次 會議을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56分 散會)

○出席委員

沈揆辰 李丁煥 姜晶錫 金亨根

蘇中天

○專門委員

張奉萬

○出席公務員

文化觀光局長 金光市